

전남, '남해안 기후위기 선도도시' 위상 다졌다

여수서 3차 유엔기후주간 고위급기념식 도,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거점 강조

전남도가 지난 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고위급 기념식'을 개최하고 명실상부한 기후도시이자 대한민국 남해안 기후위기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기념식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누라 함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 대행, 브라질·튀르키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장국 대표, 당사국 대표단 등

국제사회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행동의 선도적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확충 등 탄소중립 가속화 구상을 발표했다.

누라 함라지 부사무총장은 "기후 대응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행의 새 시대를 열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이행포럼에서는 투자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후행동의 실질적 이행 방안, 기후 자원조달 가속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방

안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청년기후 행동대표단(PYCC)은 기후행동에서의 AI와 혁신을 주제로 미래 세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전남의 실천적 기후 정책을 소개하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산업도시의 성장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선봉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부지사는 "산업단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전환하고 깻벌과 해조류를 블루카본 자산으로 육성하면서 2050년까지 5억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에 대한

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영사원 기자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식 행사에서 UNFCCC 부사무총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벼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 지원

친환경벼 1ha당 120만원 정액 지급

내달 1-29일 해당 복지센터 접수

광주시는 26일 "쌀값 불안정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중소농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복잡했던 면적 구간을 1ha 이하, 1ha 초과-3ha 이하, 3ha 초과-5ha 이하 등 3개 구간으로 단순화했으며 지원 상한을 5ha로 설정했다.

이는 일부 대규모 농가에 편중됐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농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재배 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벼 재배농가에는 1ha당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일반 벼 재배농가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

등 지원한다.

일반 벼 지원 단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5년산 벼를 1천㎡ 이상 직접 재배한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역 내 약 5천 5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1일부터 29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광주 '찾아가는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10개 초등학교 750여명 대상

심폐소생술·소화기 사용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 "학생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광주지역 10개 초등학교 총 750여명의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찾아가는 소방안전 체험교실'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체험형 안전 교육을 제

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와 광주지역 5개 소방서 소속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동부이용소방대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안전교육 장비와 영상·음향장치를 활용하며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소화기·소화전 사용,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위기 대처 훈련 등으로 구성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복리증진 등 내달 29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6일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5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 전역에 파급 효과가 있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 사업이다. 기획·사

회, 행정·환경, 경제·관광 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안할 수 있다.

전남도에 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안서는 '주민e참여' 또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

광주시는 26일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대응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 과정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과정, 반려견지도사(2급·3급) 과정 등 3개 교육과정 총 11명이다.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 과

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5명을 오는 5월6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신청서·자기소개서 등을 구비해 전자우편(pdh0806@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과정과 반려견지도사(2급·3급) 과정은 지역 대학 반려동물학과장 추천을 통해 교육생 6명을 5월1일까지 선발한다. /변은진 기자

우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61(두암동)
http://farmersbank.nonghyup.com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믿고 찾는 든든한
우리지역 희망동행 광주농협

- 본 점 : 250-5000
- 동 광 지 점 : 266-7144
- 오 치 동 지 점 : 264-0341
- 풍 향 지 점 : 512-4004

- 서 방 지 점 : 521-9731
- 충 효 지 점 : 266-6620
- 두 암 동 지 점 : 263-6619
- 산 수 동 지 점 : 232-6956

- 문 화 동 지 점 : 263-0537
- 중 흥 동 지 점 : 265-9676
- 문 흥 동 지 점 : 268-7011
- 매 곡 동 지 점 : 573-4111

- 밤 실 지 점 : 251-3701
- 일 곡 지 점 : 571-8000
- 용 주 지 점 : 528-4100
- 영 농 자 재 선 터 : 267-5653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 오 치 점 : 250-4661
- 동 광 주 점 : 269-5100
- 두 암 점 : 250-5127
- 충 효 점 : 266-6630